

알뜰폰 점유율 규제에… SKT ‘긍정적’, KT·LGU+ ‘반대’

과기정통부 점유율 제한 검토

SKT “중소사업자 자생력 키워야”
LGU+ “정부 과도한 규제 지양
중소 사업자들과 상생 고려해야”
증권가 “통신주 전반 부담 줄 것”

정부가 한동안 잠잠했던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알뜰폰 자회사들에 대한 시장 점유율 제한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을 제외한 이동사와 자회사들은 ‘알뜰폰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점유율 제한에 대해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고, SKT는 점유율 제한에 대해 오히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통신사 자회사의 알뜰폰 기업의 합산 점유율이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점유율 산정에서 사물인터넷(IoT) 등 M2M 회선을 포함할 지가 명확하지 않다. 이에 따라 이 규제는 작동되지 않고 있다. 최근 커넥티드카 등 IoT 시장이 활성화되며 M2M 회선이 급격하게 늘어나 통신 자회



서울 시내 한 휴대폰 할인매장 앞의 모습.

/뉴시스

사 알뜰폰의 합산 점유율은 이미 50%를 넘는 상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는 알뜰폰 관련 법안이 다수 계류돼 있다. 지난 1월 알뜰폰 도매 규제와 점유율 규제를 다룬 6건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의원들 간 이견으로 의결이 보류된 바 있다.

양정숙 의원과 박완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통신사 계열 알뜰폰의 점유율을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통신사들은 정부의 이 같은 규제 강화에 따라 잔뜩 긴장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LG유플러스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정부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통망이 부족한 중소 사업자를 위해 알뜰폰 상담 전문매장인 ‘알뜰폰+’을 운영하고 있고, 전문 상담직을 통해 우체국 알뜰폰 활성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며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가입자가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통신 자회사 한 관계자는 “방송, 인터

넷, 알뜰폰 결합상품을 동시에 판매하고 있어 알뜰폰 사업이 꼭 필요하다”며 “정부의 규제로 통신 자회사의 점유율이 50%를 넘어서면 알뜰폰 시장에서 더 이상 고객을 유치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기를 앓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통신 자회사 관계자도 “시장 점유율이 50%를 초과해 소비자들이 통신사의 자회사의 알뜰폰 서비스에 가입을 못 하면 이용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통신 3사 자회사의 C/S가 중소기업자보다 낮기 때문에, 통

신사의 자회사를 이용하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5G 중심의 고ARPU(가입자당평균 매출) 가입자 유치에 주력하고 있는 SKT는 저ARPU인 알뜰폰 회선으로 가입자가 이동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SKT는 알뜰폰 사업 철수를 신중히 검토 중이다.

SKT 관계자는 “경쟁사에서 알뜰폰 시장에 과도한 마케팅 활동을 하다 보니 점유율이 50%를 넘었다”며 “중소 사업자도 이동사 망을 이용하는 데만 의존해서는 자생력을 갖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증권가에서는 정부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규제가 통신주 전반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이번 규제는 국회 과방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전망”이라며 “통신 3사 합산 기준 50%로 점유율을 규제할지, 3분의 2로 정할지 알 수 없지만 최근 이동통신(MNO)에서 MVNO 위주로 가입자 유치 정책을 펼치던 통신 3사 마케팅 구조엔 큰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네카오, 경제 한파에 몸집 줄이기 단행

카카오 타파스엔터, 韓 법인 청산
북미 시장 대처 위해 경영 효율화

네이버 북미 자회사 웹소설 왓패드
임직원 15%인 42명 정리 해고

카카오와 네이버가 북미 지역 중심에 위치한 자회사들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나섰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웹툰·웹소설 자회사인 타파스엔터테인먼트(이하 타파스엔터)는 한국 법인 청산 작업에 나섰다.

타파스엔터는 오는 4월 1일부터 국내 법인 ‘타파스 코리아’ 청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타파스코리아가 담당했던 마케팅, 운영 등의 서비스는 카카오엔터로 이관된다. 이에 타파스코리아는 약

30여 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권고사직을 제안하고 희망 퇴직을 하는 인력에게는 4개월 분의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엔터 측은 “글로벌 경제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미 시장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경영 효율화하는 과정”이라며 “타파스코리아가 해 오던 업무를 더 경험 많고 역량 있는 카카오엔터가 이어받기로 하면서 한국 법인은 청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도 북미 자회사 웹소설 플랫폼 왓패드의 인원을 감축하고 나섰다.

왓패드는 지난 8일(현지시간) 전체 임직원 267명 중 42명을 정리해고했다고 공지했다. 이는 전체 직원의 15% 이상이다. 왓패드는 퇴사 직원들에게 6개월간 복지 혜택을 유지하고 최소 12주 치 퇴직금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남경보 왓패드 대표는 공지사항을 통

해 “최근 2년 동안 100명에 가까운 새로운 사람을 채용했다. 이제는 우리가 현재의 사업적 필요와 현실에 기반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지나해 글로벌 경제 현실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고 우리는 이에 대한 면책이 없다”고 인원감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네이버는 지난 1월 인수한 미국 패션 플랫폼 기업 포시마크도 일부 직원을 상대로 해고를 통지했다. 전체 직원 수 800명 중 약 2% 미만의 직원들이 감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북미 지역의 플랫폼 자회사들의 인력을 감축하고 나선데에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우선 네이버와 카카오가 글로벌 진출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한 데에 따른 수익이 가시화 되지 않고 있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최빛나 기자 vitna@

삼성SDS, 통합 공급망 플랫폼 역량 확보

(주)엠로 지분 33.4% 인수
SaaS 사업 경쟁력 강화

삼성SDS는 15일 국내 1위 구매공급망관리(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 전문기업인 (주)엠로의 지분 33.4%를 인수하고 최대주주로서 이사회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삼성SDS는 이번 전략적 투자를 통해 공급망의 계획-구매-실행을 모두 아우르는 글로벌 통합 공급망(SCM) 플랫폼 역량을 갖추게 됐다.

삼성SDS는 기존에 공급망 계획 솔루션 넥스프라임(Nexprime SCM), 공급망 물류 실행 솔루션 첼로(Cello)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구매공급망관리 영역에 특화된 솔루션까지 확보하게 된 것.

최근 삼성SDS는 기업 클라우드 시

장을 본격 공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업 맞춤형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SCP) ▲올인원 매니지드 클라우드 서비스 ▲업무혁신을 위한 삼성 엔터프라이즈 SaaS 세가지를 중심으로 역량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이번 인수로 통합 공급망관리(SCM) 솔루션을 모두 확보함에 따라 삼성SDS의 SaaS 사업이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SDS는 통합 공급망 플랫폼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업 확대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엠로는 삼성SDS의 글로벌 사업에도 중요한 파트너로 함께 활동하게 된다.

황성우 삼성SDS 대표이사(사장)은 “클라우드 사업 포트폴리오의 한 축인 SaaS 솔루션 공급사로의 입지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갤럭시A52s’ 공시지원금 최대 51만원

SKT, 지원금 15만원 상향 조정
‘T다이렉트샵’ 1만9900원에 판매

삼성전자 새 보급형 스마트폰 ‘갤럭시A34’와 ‘갤럭시A54’가 15일 공개되는 가운데 SK텔레콤이 A시리즈 전작인 ‘갤럭시A52s’ 공시지원금을 최대 51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조정은 월 6만원 이하 중저가 요금제의 갤럭시A52s 공시지원금이 약 15만원 오른 50만원대라는 게 특징이다. 월 4만원대 5G 최저가 요금제에도

추가지원금까지 고려하면 출고가가 59만9500원인 이 스마트폰을 약 2만원에 살 수 있게 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갤럭시A52s 공시지원금을 34만2000원(월 4만9000원 요금제 기준)에서 50만4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온라인몰인 ‘T다이렉트샵’은 공시지원금의 15%인 추가 지원금 7만5600원까지 더해 59만9500원짜리 갤럭시A52s를 1만9900원에 팔고 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A52s 5G’.

/삼성전자

월 5만 5000원~8만 9000원요금제 기준 공시지원금은 36만7000원에서 50만 8000원으로 올랐다. 추가 지원금 7만 6200원을 더한다면 갤럭시A52s를 1만 5300원에 살 수 있게 된다.

/채윤정 기자

코오롱인더스트리, 첨단 수소 기술력 선포

미 월드 스마트 에너지 워크 참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전세계에 수소 기술력을 자랑했다.

코오롱인더는 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월드 스마트 에너지 워크 2023’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월드 스마트 에너지 워크 2023은 2005년부터 일본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에너지 산업 관련 전시회로 수소 및 연료 전지, 태양광 발전, 2차전지, 스마트 그리드 등을 다룬다. 올해에는 1200여개 기업이 참가해 5만여명 이상이 관람할 예정이다.

코오롱인더는 ▲연료전지용 수분제

어장치 ▲고분자 전해질막(PEM,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막전극 집합체(MEA, Membrane Electrode Assembly) ▲VENT(멤브레인 기반 소재) 등을 선보였다.

코오롱인더는 1989년부터 분리막으로 불리는 ‘멤브레인’ 연구를 진행하며 수처리 분야 기술력을 축적해왔다. 2006년부터 수소연료전지 R&D를 통해 국내 최초로 수소차 내 핵심 부품인 수분제어장치 양산 체제를 갖추고 현대차에 공급 중이며 모빌리티 분야에 이어 발전용, 산업용으로도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